

반값 갤럭시폴드?... 삼성, 폴더블 대중화 신호탄 쏘나

‘갤럭시 폴드2’ 렌더링 이미지 등장
전작과 달리 외부화면 좁고 길어
후면엔 초광각 등 카메라 3개 탑재
출고가격 100만원대 초반 전망
명칭 ‘갤럭시 폴드 라이트’ 추정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춘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 라이트(가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A’ 라인업을 통해 중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데 이어 폴더블 폰 영역에서도 가격을 내려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5일 해외 액세서리 전문 사이트 피그투우가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외부 화면 크기의 변화가 눈에 띈다. 피그투우는 삼성전자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힌지 구조를 포함하는 전자장치’



‘갤럭시 폴드 라이트(가칭)’으로 추정되는 렌더링 이미지.

/피그투우

라는 새로운 관련 특허를 낸 것을 바탕으로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했다.

피그투우는 해당 제품에 대해 갤럭시 폴드 2 디자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이를 갤럭시 폴드 라이트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갤럭시폴드 라이트를 접었을

때 외부화면은 좁고 긴 형태로 위치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폴드’의 외부화면 크기가 4.6인치로 화면을 펼치지 않고도 많은 기능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갤럭시폴드 라이트는 시간과 메시지 등 간단한 알림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Z 플립’에도 1.1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바 있다.

갤럭시 폴드 라이트 후면에는 초광각·광각·망원으로 구성된 3개의 카메라가 위치한다. 기기를 펼쳤을 때 내부화면은 갤럭시 폴드와 같은 듀얼 카메라와 7.3인치의 노치 디자인이 적용됐다. 측면에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지문인식 버튼이 위치한다.

이처럼 외부 화면을 제외하고는 갤럭시 폴드와 디자인이 유사한데, 업계는 이를 갤럭시폴드의 재고 정리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가격은 100만원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폴드 출고가격이 239만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

한 차세대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3’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가격을 낮춘 갤럭시 폴드 라이트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언팩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최초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고, 올해 2월 갤럭시Z플립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갤럭시 폴드2와 라이트 버전이 공개되면 4종의 폴더블폰 라인업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출고가 165만원으로 나온 갤럭시 Z 플립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출시 후 약 37만대(5월 초 기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라이트 버전의 성공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IT 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Z 플립의 3월 글로벌 판매량은 2월 판매량인 14만7000대에서 56.1% 늘어난 23만대를 기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U+ “360도 AR로 농산물 고르세요”

GS홈쇼핑과 ‘착한소비’ 나서
어려움 겪는 농가·기업 지원

LG유플러스와 GS홈쇼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착한 소비’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GS홈쇼핑과 손잡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국내 과수농가의 농산물과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GS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사과, 신발, 믹서기 등 해당 상품은 U+AR쇼핑 앱을 통해 실제 3D AR 제품 이미지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들의 잡화, 의류 등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U+AR쇼핑 앱을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 한 건에 대해 홈쇼핑과 동



모델들이 U+AR쇼핑 앱을 소개하고 있다.

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LG유플러스 멤버십 이용자에게는 5%의 추가 할인 또는 10%의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U+AR쇼핑은 5G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방송중인 홈쇼핑 채널을 비추면, 해당 상품 정보를 360도 3D AR로 실제의 제품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U+AR쇼핑

앱 실행 후 해당 상품 방송 시간에 홈쇼핑 화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거나 앱 내의 방송편성표에 있는 ‘AR’ 표시가 있는 상품을 클릭하면 실제 쇼핑하듯 상품을 360도로 돌려가며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통신사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IPTV 제공 사업자에 상관없이 GS홈쇼핑 방송이 송출되는 모든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아시아나, 전세기로 越 하늘길 다시 열어

나트랑 현대미포조선 기술진 수송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교민 등의 수송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다년간 쌓아온 해외 노선 운항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기 운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거점을 둔 글로벌 국내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국가가 국경을 닫은 상황에서 전세기를 통해 출·입국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적사로서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기 운항 승인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3일 현대미포조선 기술진을 태운 전세기 OZ773편이 나트랑 공항으로 입국한 바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에 외국인 입국을 불허한 뒤, 나트랑 공항으로 외국인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현지 지점과 현대베트남조선이 베트남 정부 및 나트랑 공항이 소재한 칸호아성 당국으로부터 특별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반동, 하노이) 및 중국(광저우)에 LG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에 기아자동차 엔지니어 ▲인도(첸나이)에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등을 수송한 바 있다. 또한 ▲인도 뉴델리 ▲호주 시드니 ▲필리핀 클라크필드 등에는 현지 교민을 수송하는 등 6월에만 총 6930명의 인원을 전세기로 수송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 파주산단 상용망에 5G SA 구축

KT는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5G SA 소비자(B2C)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5G S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초부터 시험환경 및 상용환경의 네트워크에서 장비연동, 기능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어 최근 파주산업단지에 S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용망 환경에서 B2C 서비스를 검증해 상용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

실제 고객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SA 서비스 초기에는 진화된 패킷 시스템(EPS) 풀백 기술을 사용해 음성통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음성 서비

스를 제공한다.

KT는 올해 4월 시험망에 EPS 풀백 기술을 처음 적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품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 파주산업단지 상용환경에서 보다 안정된 음성통화 및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KT는 이동환경에서 끊김 없이 5G SA 데이터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품질 확보에 성공했다. KT는 이번에 상용환경에서 SA 시험을 통해 음성통화 서비스, 데이터통신 안정성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서비스에 따라 맞춤형 품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

KT는 이번에 구축한 파주산업단지의 5G SA 상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SA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한다. /김나인 기자

“에너지효율 1등급”... 삼성, 9kg 소용량 건조기

전용량 1등급,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소용량 건조기도 1등급 시대를 연다.

삼성전자는 26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하는 9kg 건조기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그랑데 건조기 16kg과 14kg 모델로 유일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9kg 모델까지 1등급을 획득하면서 국내 유일 전 용량 1등급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건조 성능, 위생, 스마트 기능까지 강화했다.

총 8개의 센서가 주기적으로 건조기



삼성전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9kg 건조기.

내부의 온·습도를 감지해 최적의 상태로 건조해주는 ‘AI패속 건조’ 기능도 적용됐다. 제품 곳곳에 탑재된 센서가 불필요한 건조시간을 줄여줘 기존 9kg 제품 대비 전기료가 회당 88원 수준으로 약 20% 절약되고, 건조 시간도 63분(패

속코스 기준)으로 13분이나 단축된다.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면적이 기존 제품 대비 36%, 컴프레서 압축 실 용량이 23% 나 커져 건조 효율을 높여 준다.

위생과 청결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보다 넓어진 ‘울인원 필터’와 물세척 가능한 ‘마이크로 안심필터’를 적용해 열교환기로 가는 먼지를 최소화했다. 또 열교환기 내부를 더욱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케어’ 코스를 추가해 제품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습기까지 말려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 준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2개로, 출고가는 각각 114만 9000원과 124만 9000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